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창단 첫 3연승

강경민 8득점...개인 통산 400득점
8득점 서아루 MVP...대구에 32-28
핸드볼리그 중간 순위 3위에 올라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올시즌 파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1라운드 6차전 컬러풀 대구와 경기에서 32-28, 4점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광주도시공사는 2010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3연승을 기록하며 3승1무2패(승점 7점)로 리그 중간 순위 3위에 올라섰다. 이날 경기에서 강경민은 8득점 2어시스트로 개인 통산 400득점을 달성했다. 서아루는 8득점과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 MVP로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3연승 경기에서 모두 30점대 득점을 올려 공격적인 팀으로서 면모를 보였다. 리그 첫 승을 신고했던 경남개발공사와 대결에서 32득점, 이어 인천시청과의 대결에서는 31득점을 기록했다. 대구와의 경기는 출발부터 순조로웠다. 전반전 서아루의 득점을 시작으로 광주도시공사의 출발은 좋았다. 전반 20분에는 14-7로 리드하며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한 때 위기도 찾아왔다. 대구가 전반전 40초를 남겨 놓고서는 13점을 기록하며 광주도시공사를 1점차까지 쫓아왔다. 강경민의 플레이는 위기에서 더 빛났다. 자칫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칠 수 있는 위기에서 강경민(CB)이 득점을 올리며 15-13으로 추격을 막았다. 후반전 득점의 포문도 강경민이 열었다. 이후 원선필, 김지현, 서아루가 슈트를 성공시키며 경기를 풀

어나갔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잇단 실책과 파울로 득점에 실패한데다 대구 골키퍼 심현지(GK)에게 번번이 슈팅이 막히면서 후반 10분에는 20-18, 2점차까지 쫓겼다. 다급한 컬러풀대구와 달리 광주도시공사는 차분히 공격을 이어가며 득점을 올렸고 경기 종료 1분 30초 남은 상황에서 최지혜의 슈트가 골로 연결되면서 32-28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지난 인천시청과 경기에서 보여줬던 조직력이 유지돼 승리할 수 있었다"며 "부산시청공과 더불어 강력한 우승후보인 삼척시청과의 경기들 앞두고 있는데 부담 없이 실력을 펼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1일 오후 4시40분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삼척시청과 1라운드 7차전 경기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지난 19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구전에서 슈트를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윤성민 생애 첫 백두장사 꽃가마

소속 팀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단체전 우승



백두장사(140kg이하)에 등극한 윤성민(영암군민속씨름단)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9일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0 정읍 민속리그 왕중왕전'에서 단체전 최강단에 등극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민(34·영암군민속씨름단)이 데뷔한 지 13시즌 만에 생애 첫 백두장사 꽃가마를 탔다. 윤성민은 지난 19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0 정읍 민속씨름리그 왕중왕전' 백두급(140kg 이하) 장사 결정전(6전 3승제)에서 박정석(양평군청)을 3-1로 물리쳤다. 2008년 연수구청에서 실업 무대에 데뷔, 지난 시즌 영암군민속씨름단으로 이적한 윤성민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생애 처음으로 백두급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8강에서 김병찬(정읍시청), 4강에서 임진원(영월군청)을 모두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그는 박정석과 만난 결승 첫판 잡채기로 한 점을 쟁기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두 번째 판 박정석이 뿌려치기로 반격해 1-1 동

점을 만들었지만, 윤성민은 이어진 경기에서 발다리라 밀어치기로 연달아 승리해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단체전 결정전(결정전 3전 2승제·팀 간 7전 4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는 영암군민속씨름단(전남도)이 울산동구청(울산광역시)을 2-1로 물리치고 '최강단'에 등극했다. 민속씨름에서 최강단 결정전이 열린 것은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전남 열린 최강단 결정전 첫 경기에서는 마지막 판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울산동구청이 4-3으로 승리해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이날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 울산동구청을 4-1로 제압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세 번째 경기에서도 4-2로 승리해 최종 스코어 2-1로 우승을 확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흥군청 육상팀 공식 창단

장흥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공식 창단했다. 장흥군청 육상팀은 장흥군의 첫 직장운동경기부팀으로 지난 3월 선수단을 구성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식 창단식을 미뤄오다가 이날 창단식을 열었다. 창단감독은 문준환 전 대한육상연맹 투척 종목 국가대표 감독이 맡았고 선수는 4명으로 꾸려졌다. 필드 부문에서는 원반던지기 이훈(32)과 권수아(26·여)가 포함됐다. 트랙에서는 경보 20km 김

낙현(25)과 10km 정혜정(30)이 창단 멤버로 합류했다. 이훈과 김낙현은 지난 10월 경북 예천에서 열린 2020 예천 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에서 원반던지기 동메달과 20km경보에서 동메달을 획득, 창단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체육회는 장흥군청 육상팀에게 창단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며 창단을 축하했다. 김재무 회장은 "전남체육의 34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장흥군청 육상팀의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최근 전남체육은 기초종목인 육상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팀 창단, 한전 육상팀 연구이전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장흥군청 육상팀이 전남 육상과 전남체육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응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태권도, 유러피언게임 정식 종목 채택

8년만에 재진입 우리나라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8년 만에 다시 유러피언게임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다. 유러피언게임위원회(EOC)는 18일(현지시간) 태권도와 함께 카누, 근대5종을 2023년 유러피언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4년마다 열리는 유러피언게임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종합대회다. 3회째인 2023년 대회는 폴란드 크라쿠프-마우폴스키에서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하계올림픽 종목인 태권도는 201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회 유러피언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아시안게임, 팬아메리카게임, 아프리카게임, 오세아니아게임에 이어 5개 대륙의 모든 종합경기대회 종목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2019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제2회 유러피언게임에서는 정식종목에서 빠졌다. 세계태권도연맹(WT)에 따르면 겨루기만 치르는 2023년 대회에서 태권도에는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남녀 8개씩, 총 1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2024 파리올림픽 개최 1년 전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유럽 정상급 선수들의 올림픽 전조전 무대가 될 전망이다. 카누 슬라럼과 근대5종은 유러피언게임에서는 처음 정식 종목이 됐다. /연합뉴스

'도핑 스캔들' 러시아, 도쿄·베이징올림픽서 국가·국가 사용 못해

러시아가 내년 열리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자국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최근 러시아의 도핑 샘플 조작 혐의를 인정해 2년간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국가 자격으로 2022년 12월

16일까지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내년 7~8월 치러질 예정인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2022년 11~12월 카타르 월드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핑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된 선수들은 '중립국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뛸 수 있으나 러시아 국기와 국가 사용은 금지된다. CAS는 또 징계 기간 러시아가 주요 국제 대회

를 유치 또는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올림픽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대표가 참가하는 길도 막혔다.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작년 12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가 양성 반응이 나온 도핑 테스트 결과를 숨기는 등 도핑 샘플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4년 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러시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CAS에 이의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조제
2관	도굴
3관	이웃사촌
4관	조제
5관	런
6관	이웃사촌
9관	조제
7관 씨네커플	러브 액츄얼리, 레벨 16
8관 씨네커플	언플랜드, 리플레이, 호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간 속의 도시

초연 21회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cinema

리처드 용재오닐 '선물'

2020. 12. 2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애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